

카카오 'SM 인수전' 승리... 하이브, 플랫폼 협력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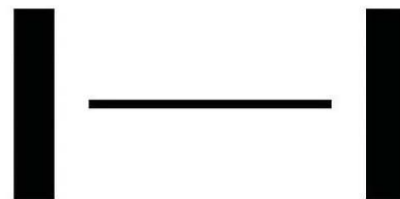
하이브 “공개매수 등 부정적 영향
시장과열 우려, SM인수절차 중단”
15.78% 보유주식 처리방안은 합구

카카오 “하이브의 결정 존중”

26일 예정된 공개매수 진행기로
매수 성공엔 지분 39.91% 보유



kakao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하이브(HYBE)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카카오는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와 합의에 성공해 SM엔터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브, SM 인수 중단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SM의 가치와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 비용까지 고려한 적정 인수가격 범위를 설정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고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추가 공개매수로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주시시장마저 과열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SM 인수를 위해 제시해야 할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SM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인수 절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브측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카카오와 논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고, 양사는 대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며 “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양사의 플랫폼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대내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M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하이브는 그동안 SM 인수와 관련해 응원 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이브가 보유한 SM엔터 지분 약 15.78%의 구체적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다. 카카오가 하이브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은 물론 하이브가 SM엔터의 2대주주로 남은 후 추후 카카오엔터로 합병 및 상장 과정에서 지분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이번 극적 합의에 이른 만큼 오는 3월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카카오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 진행

카카오는 하이브의 결정을 존중하며,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

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배재현 대표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SM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 SM엔터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는 파트너로서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SM엔터와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지분율은 4.91%로 지분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지분율을 39.91%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카카오는 SM엔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

덤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M엔터의 글로벌 IP와 제작 시스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IT 기술과 IP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음악 IP의 확장을 넘어 IT와 IP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이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배 대표는 “치열한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IP 경쟁력과 IT 기술력 뿐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성공 노후를 공유하는 선의의 경쟁자가 필요하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산업 내 파트너들과 공정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며, 대한민국의 차기 수출 주력 산업으로 규모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가 카카오와 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반발 등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맥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맥주·탁주가격 인상 제동... 주세법 손본다

기재부,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

맥주와 막걸리값이 들쭉이자 정부가 또 다시 술에 매기는 세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와 연동돼 산정되는데 그걸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술인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가 인상됐고, 주류 업계에서 덩달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제동을 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주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제조원가에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종가세다. 그런데, 정부는 4년 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맥주, 탁주 주류 업

체들은 수입 맥주보다도 세금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가 이를 반영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물가가 5%대로 치솟자 정부가 재량을 발휘해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 세율을 주세로 적용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는 1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주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자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였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주류 가격이 들쭉이며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세법 개정 시 담배세처럼 종량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1l 당 세금을 매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쉐어 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물가 인상 여파에 밀려 정부가 다시 주류세 비율을 고정시키는 안을 검토하자 물가를 빌미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술값마저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상반기 세계 첫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산업부, 관련고시 행정예고

암모니아 연료의 무탄소 발전원

2025년 발전분 올 2회 입찰 진행

관련법령 마련 후 내년 초 개설기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중에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수소발전을 본격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발전 기술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수소발전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2023년~2025년까지 3개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예고 이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수소발전, 특히 연료전지를 보급해 왔으나, 수소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는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 분리해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을 경쟁해 보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입찰시장 개설연도별 입찰물량〉

입찰시장 개설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상업운전 개시연도	개설물량 (GWh)	상업운전 개시연도	개설물량 (GWh)	상업운전 개시연도	개설물량 (GWh)
일반수소 발전시장	2025년	1,300(주)	2026년	1,300(주)	2027년	1,300(주)
청정수소 발전시장	-	-	2027년	3,500	2028년	3,000

주) 설비용량 기준 200MW에 해당.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앞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 작년 6월 수소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1월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을 현행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력거래소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2025년 일반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2025년~2027년까지 일반수소 발전 개설 물량은 매년 1300GWh(기가와트시)로 정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인 2024년 초 처음 개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환경성을 고려해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추출수소나 부생수소 등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청정

수소 시장,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해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해 개설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대신,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해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추진한다. 청정수소 발전량은 2028년부터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을 확보해 연간 6500GWh에 달할 전망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10~20년 장기 계약에 통해 공급된다.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를 약 830만톤 감축하고,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통해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승수 기자 hys@